

보도시점 2024. 4. 23.(화) 10:00 배포 2024. 4. 23.(화) 10:00

집현동(4-2생활권)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순항

- ‘건강한 복합커뮤니티센터’ 테마로 ’25년 하반기 준공 목표

행복청(청장 김형렬)은 ‘집현동(4-2생활권) 복합커뮤니티센터(이하 복کم)’ 건립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.

집현동 복کم은 ‘23년 4월에 착공하여 터파기, 암발파 등 기초공사를 올해 3월까지 완료하였으며, 3월 말부터 지하층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11월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, ’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.

총사업비 636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 7163㎡(부지면적 1만 5009㎡)에 지하 1층,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며 119안전센터, 경찰지구대, 우체국이 함께 지어져 주민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.

집현동 복کم의 가장 큰 특징은 ‘건강한 복합커뮤니티센터’라는 테마를 적용하여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증진시킬수 있도록 계획했다는 점이다. 내·외부와 연결되는 넓은 공간을 활용해 바깥공기를 접하면서 상하층 간 이동이 가능한 공간들을 여러 곳에 마련하여 복کم 내 여러 시설과 배움터 문화공원 등 외부와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했다. 그리고 수영장(25m, 6레인) 및 단체운동 공간 등 체육시설을 조성될 예정이다.

안정희 공공시설건축과장은 “집현동 복کم은 행정, 문화, 복지, 체육 등의 공공 편익시설에 소방·치안·우편시설까지 복합화한 4생활권의 거점 행정복지 공간으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시설사업국 공공시설건축과	책임자	과 장	안정희 (044-200-3320)
		담당자	사무관	조계윤 (044-200-3324)

붙임

조감도

☐ 조감도



☐ 현장 전경사진

